

STOP 무한도전

“곽도원, 금품 요구 협박 당했다”

소속사 측 “연희단거리패 여성 4명이 요구”



양리 특집



가요제



추격전

MBC TV 간판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오는 31일, 12년 만에 멈춘다.

2006년 시작해 파업이나 재정비를 위한 짧은 휴식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쉬 없이 달려온 ‘무한도전’은 국내 예능사(史)에 가장 큰 획을 그은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그 위치에 걸맞게 출연진은 모두 톱스타가 됐고, 프로그램 팬덤도 막강하다.

◇ 추격전부터 ‘토토가’까지…김태호 PD의 씁쓸한 현실 ‘무한도전’의 등장 전까지 국내 예능계는 스타 게스트에 의존한 톱쇼 등 소수의 정형화된 포맷만이 대다수였으나, ‘무한도전’의 히트 후 대부분이 리얼 버라이어티로 변모했다.

특히 ‘무한도전’의 선장 김태호 PD는 씁쓸한 활영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기획에 도전했다. 프로그램 초기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와 ‘여드름 브레이크’ 편에서 보여준 추격전과 두뇌 싸움은 현재까지도 다른 예능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포맷이다. ‘무인도 특집’, ‘명수는 12살’처럼 고정 멤버들의 개인기에 의존해 즉석에서 프로그램을 풀어 나가는 방식, 외국 드라마 오디오나 패션쇼 도전 등 ‘팬팅에 해당’ 같은 내용 역시 그렇다.

참신한 기획들로 팬덤을 구축한 김태호 PD는 이후에는 자체 가요제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등 대형 프로젝트도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예능뿐만 아니라 가요계를 포함한 연예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일본 우도모 마을과 하시마섬을 찾은 삼일절 특집과 랩으로 역사를 기억한 ‘위대한 유산’ 편은 사회적으로도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밖에 테니스 선수 마리아 샤라포바, 프로골퍼 미셸 위, 미국 사교계 스타 패리스 힐튼, 이종격투기 챔피언 표도로 에멜리아넨코, 축구선수 티에리 앙리, 농구선수 스테판 커리, 코미디언 잭 블랙, 복서 매니 파키아오 등 외국 스타들도 ‘무한도전’을 거쳐갔으며 ‘백세인생’의 가수 이예란처럼 국내 감각 스타도 다수 탄생했다.

‘무한도전’은 시청률 역시 ‘이산특집’ 등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2008년 무렵 30%까지 찍으면서 고공행진을 했다.

12년간 국내 예능 판 주도…팬덤 형성 가요·스포츠 등 연예계 전반에 큰 영향 다양한 포맷 인기…31일 마지막 방송

최근에는 화차가 쌓이고 시청 환경이 바뀌면서 전성기에 한참 못 미치는 10%(닐슨코리아) 정도 수준이지만, 골수 팬덤의 지지 속에 화제성만큼은 변함없이 다른 예능을 크게 앞섰다.

10년 이상 이어진 방송에 김태호 PD가 여러 차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해왔지만 새로 오는 MBC 경영진마다 만류했던 것도 ‘무한도전’이 MBC를 상징하는 부분과 광고 수익 등 가져다준 것들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 파업 후 새로 취임한 최승호 사장은 김태호 PD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물론 MBC 입장에서는 ‘무한도전’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져가되 제작진과 출연진을 일부 교체하는 카드가 좋았겠지만, ‘무한도전’의 상징성과 몸집이 너무 큰 현실을 깨닫고 결국 마침표를 찍었다.

그레도 아쉬웠던 MBC는 “3월 말 이번 시즌을 마감하고 휴식기를 갖기로 했다. 가을 이후 김태호 PD가 ‘무한도전’ 새 시즌 또는 아예 새 기획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시즌2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스스로와 팬들을 달랬다.

◇ 각자 ‘툼’이 된 멤버들에 화려 선 팬덤으로 인한 명암 ‘무한도전’의 얼굴인 유재석을 비롯해 프로그램 초기부터 함께한 멤버들은 한 명씩 놓고 봐도 ‘특급 예능인’들이 다. 일단 유재석부터가 ‘무한도전’ 덕분에 ‘국민MC’로 성장할 수 있었다.

‘1인자’를 자처한 박명수는 ‘무한도전’ 밖에서 1인자가 된 지 오래고 정준하와 하하 역시 가장 ‘핫’한 예능인들이 다. 이밖에 ‘무한도전’을 거쳐간 정형돈, 노홍철 등도 각자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렇게 각각 멤버들이 비대해지면서 지분도 커지

다 보니 그림자도 생겨났다. 유승준 등 물이나 건강상 문제로 멤버들이 하나씩 하차할 때마다 프로그램은 크게 흔들렸다.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6명이 최적의 인원이었지만 빈자리를 채우려 하면 화려 선 팬덤이 때때로 번들거리는 카드가 좋았지만, ‘무한도전’의 상징성과 몸집이 너무 큰 현실을 깨닫고 결국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어렵게 멤버들을 채우더라도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각자 몸집이 비대해진 탓에 초반처럼 ‘날 것’ 그대로의 팀워크로 풀러가지는 않는 모습도 이따금 노출됐다. 20~30대에서 출발한 멤버들이 40대가 되면서 순발력과 패기가 떨어지고 점점 움직임이 적은 기획을 선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사이 국내 예능의 상징이 된 이 프로그램은 사소한 논란에도 때때로 부침을 겪으면서 제작진과 출연진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피로도에도 가중치가 붙었다.

그럼에도 ‘무한도전’은 12년간 쌓은 제작 노하우와 팀워크를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토토가3-H.O.T.팬’이나 여자 컬링 국가대표들과의 대결 등 굵직한 에피소드를 연이어 보여주며 힘을 과시했다.

지상파의 한 예능 PD는 24일 “‘무한도전’은 다른 예능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덕분에 소리가 증명하거나, 사고 쳐서 끝나거나, 비판 속에 마치는 대부분의 예능과 달리 마지막에도 박수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한도전’은 피로가 많이 누적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무한도전’ 중영을 계기로 시즌2 도입 등 지상파 장수 예능에 대한 장기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배우 곽도원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고소했던 일부 여성 연극인들로부터 금품을 요구받는 등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곽도원의 소속사 오름엔터테인먼트의 임사라 대표는 25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곽도원이 연희단거리패 후배들(이윤택 고소인단 중 4명)로부터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그제 연희단거리패 후배들로부터 ‘힘들다, 도와달라’는 내용의 전화와 함께 곽도원과 함께 어젯밤 약속장소에 갔다가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그분들 입에서 나온 말들은 참 당혹스러웠다. ‘곽도원이 연희단 출신 중에 제일 잘 나가지 않느냐, 다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살려줄게’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곽) 배우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4명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윤택 고소인단) 17명의 피해자 전체를 도울 방법으로 스토리펀딩을 통해 우리가 적극 기부하거나, 변호인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4명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면서 싫다고 버럭 화를 냈다”면서 “그 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곽도원에게 ‘피해자 17명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건 우리 넷뿐이니 우리한테만 돈을 주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임 대표는 “오늘 여러 차례 사고 요구 등의 전화와 문자가 왔다”면서 “너도 우리 말 한마디면 끝난다” 식의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만한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뭔가 걸리는 일이 있었다면, 여기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들 말대로 돈으로 입부터 막아야 했을 것”이라면서 그들을 고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몸담기 전 자신이 첫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였다고 소개한 뒤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흥분해 사로잡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솔리드, 22년 만의 콘서트 예매 5분만에 매진

R&B 그룹 솔리드(정재운 46, 이준 46, 김조한 45)의 콘서트 티켓이 2천 600석 모두 매진됐다.

23일 솔리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인터파크에서 단독 콘서트 ‘인투 더 라이트’(Into the light)의 예매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모든 좌석이 팔려나갔다.

5월 19~20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에서 회당 1천300석 규모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솔리드가 1996년 이후 22년 만에 여는 무대다. 이들은 1993년 데뷔해 1996년 해체를 선언하고 1997년 마지막 앨범을 냈지만, 최근 재결합해 신보 ‘인투 더 라이트’를 발표했다.

솔리드는 콘서트에서 ‘이 밤의 끝을 잡고’,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천생연분’ 등 히트곡은 물론 신곡을 빼지않고 들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8일 오후 11시 엠넷에서는 솔리드의 재결합과 컴백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송된다.

TV 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위대한 유혹자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UHD 한식의 마음	00 라디오 로맨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00 12 MBC 뉴스 20 위대한 유혹자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재)
1	2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재)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헬로키키 동물교실(재)	55 닥터 365
2	20 콘서트 필 (재)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25 좌중우돌 만국유류기	00 뉴스브리핑
3	10 미래기획 2030 <철의 미래 2부작>(재)	0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사이닝스타 50 판결의 온도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뉴스콘서트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퀘스툼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재보자들	55 색션 TV 연예통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50 가요무대			
10	50 KBS 뉴스라인	00 우리가 만난 기적 더 비기닝	00 위대한 유혹자	00 키스 먼저 할까요?
11	30 월요기획 <엄마는 전쟁 중, 게임을 해법을 찾아라>	10 안녕하세요	10 가요베스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20 UHD 이미지 다큐 <음악의 정원> 30 이웃집 할스 (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스포츠 다이아리 25 스포츠특선 MLB 핫토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일본 개항사 <일본 개항사 <두 얼굴의 이토 히로부미>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허준선사 과학쇼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월드2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클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토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강형욱의 세상에서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양풍 호두조림과 스피드 달걀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3:00 다큐 오늘 <어둠의 운전자, 박쥐> 13:10 글로벌 가족작기 -한국에 산다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4:30 똑딱맨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냥치고 나라, 코코몽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마사와 곰 17:45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1~4 19:00 스파이더맨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심장이 된다, 페루 1부 태평양의 선물> 21:30 한국기행 <여기는 처음이지요 1부 새 봄이 왔어요!> 21:50 EBS 다큐프라임 <900개의 영혼, 파푸아뉴기니> 22:45 메디컬 다큐-7요일 23:55 엄마를 찾지마 24:45 지식채널e 24:50 세계의 드라마 <에이 워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6일(음 2월 10일 丁巳)

<p>子</p> <p>48년생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겠다. 60년생 근처에 있는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72년생 몇 발자국 물러나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형상이 보이리라. 84년생 실증은 난다고 해서 미룬다거나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06, 10</p>	<p>午</p> <p>42년생 때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이 될 수다. 54년생 조금 더 나아가면 디딤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66년생 난처한 일장에 처하게 되리라. 78년생 감당하기에는 벅차겠다. 90년생 강력한 역학 관계 하에 놓이는 판세이니라. 행운의 숫자 : 15, 50</p>
<p>丑</p> <p>49년생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혼란스러울 것이다. 61년생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73년생 성곡을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85년생 쉽게 속을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라. 행운의 숫자 : 25, 39</p>	<p>未</p> <p>43년생 힘들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55년생 전도양양하니 희망적이다. 67년생 승진된다면 큰 기회를 하리라. 79년생 굳이 갈출 필요가 없으니 투명하게 임하라. 91년생 해결의 열쇠가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4, 94</p>
<p>寅</p> <p>50년생 제시 덕분에 이밥을 먹는 격이로다. 62년생 모르고 있었으면 더 나은 뻔한 일이 보인다. 74년생 물이 깊은 곳이라야만 큰 고기가 도이는 법이다. 86년생 구제적이야아만 의미가 있으니 적나라하게 파악하라. 행운의 숫자 : 91, 01</p>	<p>申</p> <p>44년생 복덕의 원인이 있으면 과보는 따르게 마련이다. 56년생 객관적인 사실로써 대해야 할 때다. 68년생 천명은 하늘에 있나니, 소신껏 행하면 그만이다. 80년생 대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물밑 작업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90, 89</p>
<p>卯</p> <p>51년생 익숙해지면 관찰을 것이니 불만하더라도 적응해나가라. 63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곳에서 터지는 마당이다. 75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라. 87년생 주장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행운의 숫자 : 87, 05</p>	<p>酉</p> <p>45년생 무의미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57년생 조금 더 진력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69년생 가까운 이와 함께 하면서 가다가 잡혀왔다. 81년생 궁극적으로는 황금골짜기에 이르게 된다고 비유할만하다. 행운의 숫자 : 66, 64</p>
<p>辰</p> <p>52년생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상승의 발판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64년생 아주 정밀하고 쓸모 있게 다듬고 가꾸어 놓을 필요가 있다. 76년생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88년생 적격이 아니니 미련을 버리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9, 18</p>	<p>戌</p> <p>46년생 기존의 것에 신선한 요소가 가미되는 대국이다. 58년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70년생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82년생 잔술밭에서 바늘을 찾고 있는 형국이니라. 행운의 숫자 : 09, 88</p>
<p>巳</p> <p>53년생 손발력 있는 임기응변이 절실한 날이다. 65년생 아주 중대한 문제이므로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느니라. 77년생 결정적인 신호는 느낌으로써 올 것이다. 89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0, 72</p>	<p>亥</p> <p>47년생 승진적인 일상에 얽매어서 규모를 줄이지 못 하면 타격이 오리라. 59년생 비슷한 처지여서 쉽게 공감하리라. 71년생 결가지는 처버리고 핵심 가치에 중점을 두라. 83년생 일관되게 지속한다면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09</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